

연중 제 31 주일

제 1 독서 : 신명 6, 2-6

제 2 독서 : 히브 7, 23-28

복 음 : 마르 12, 28-34

순정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마르 12, 30-31)

강론

소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인찬 신부 / 덕진 천주교회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안다.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어떠한 제물보다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이 사랑의 법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하도 많이 들어서 느낌이 없거나 만성이 되어서 그런가!

첫째,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성이 되어서 그러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해탈하지 않는 한 우이독경일 수밖에 없다.

둘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두려움과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참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헌신이며 봉헌이기 때문에 어렵고 두려운 것이다. 또한 사랑은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며 선택이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이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야 커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영원히 자기의 이웃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곤경에 처한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는 한, 우리의 이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어 볼 때 우리는 이웃을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 줄 때에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이웃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사랑의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마태 22, 39)

처벌 위주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감정이 무디어진 것인지, 무더기 사형소식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법무부가 사형확정을 받고 복역중이던 반사회 반인륜적 강력사범 57명 가운데 15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나머지 42명도 형 집행을 품신한 데 이어 지존과 일당 6명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들의 죄가 워낙 흉폭하고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독버섯을 제거하는 일로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흉악범들이 날뛰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의 수사력과 예방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미루고 사람의 생명을 도구로 삼은 조치에 실망을 감할 수 없다.

유엔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 및 점진적인 인권신장에 공언한다는 취지로 3년 전 사형폐지조약을 발효했다. 89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한 남미와 유럽국가들이 앞장선 이 조약은 59개 국가가 찬성했고 미국·일본·중국·회교국가 등 26개국이 반대, 별다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선 더욱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선 안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정부가 인명경시 풍조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박수 갈채를 받으며 출범한 문민정부.

초기에 단행한 사정작업이 구조적 대책마련이 안된 채 인사조치 등 처벌 위주로 마무리한 결과, 손가락질 받는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는가. **☐**

순정이 산책



조깅보다 동배운동을 많이 하세요.

모범가정을 찾아서 ㉞

김재휘(아오스딩) · 손순님(아나다시아) 가정

호성동 성당

나눔이란 것은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신적인 것, 즉 자신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쌀 한 말 팔아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과 용기를 주게 되고, 인생을 바꿔놓을만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꼭 필요하다.

김재휘(아오스딩, 56세) 씨와 손순님(아나다시아, 53세) 씨, 그리고 기현(모이세, 25세), 기석(요셉, 23세), 정현(요한, 21세)의 삼형제가 한가정을 이루어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없는 행동으로 이웃과 나누고, 또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가정이 있어 소개한다.

두 분 모두 4대째 신앙을 지켜 온 구교집안으로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기도는 대부분 각자 하지만 저녁기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께 모여 합니다. 아이들과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죠. 가끔은 술자리도 함께하고 여자친구들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전엔 팔씨름을 하면 제가 이겼는데 지금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신앙에 관한 대화들도 나누며 항상 그녀석들을 위해 기도하죠. 한 녀석쯤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주기 바라는데 그것이 마음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라며 웃는 그들의 표정엔 또다른 아쉬움과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착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부는 함께 꽃동네와 마리내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또 상지원에 봉사하러 다녔다는 손순님 씨는 피정이나 교회활동을 하는데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과 이해가 큰 힘이 되었다. 부부간에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느냐는 알קות 질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양보해야죠. 이웃간에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는 그네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들은 '88년 2월에 현재 살고 있는 우신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처음엔 신자들이 없었다고 한다. 원불교 신자였던 이웃을 전교했고, 냉담교우 여덟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도 했는데 이것이 가장 기쁘고, 또 그들 역시 기쁘게 사는 것을 보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열성적인 전교활동으로 약 5세대 정도를 전교했고, 그들 대부분의 대부·대모가 되었다. 이들은 대자·대녀들과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저녁에 간단한 식사와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대화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값지가 낮아요. 같은 신자라서 더욱 좋죠. 6년 정도 되었는데 함께 약수를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사는 애기도 나누죠. 김치 한 포기, 콩 한 쪽이라도 모두 나눕니다. 나눔이란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는 동안 50세대가 사는데 이들을 대할 땐 차별을 두지 않아요. 개신교 신자든 불교신자든 또 무신론자든 모두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을 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사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일을 해도 항상 화살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데 그래서 삶 자체가 기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늘 기뻐요.”

모범가정으로 취재하고 싶었다 했을 때 극구 사양하시던 이분들은, 설득해서 모시기는 했지만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셔서 어려움이 많았다. 주위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독거노인을 몇 년간 돌봐주시기도 하고, 곳은 일 낮은 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시면서 봉사하고, 이런 봉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하신다고 한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 위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모상대로 살면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더구나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각박한 아파트란 곳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이들의 가정에 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취재 : 김지연(마리아)

이명복 박사의

시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재갑(다두)
정원미(클라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 224-6207~9
황명건강회

유 럽 I·D

커튼, 카펫, 벽지, 바닥재, 블라인드
바티컬, 침구, 실내 인테리어

허회열(멜시오)
정영숙(마리안나)
중화산동 원예농협, 전북은행 건너편
☎ 222-5564
호출기 012-672-4286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뇨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종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인기 주유소

가정에 탱크노리로 석유, 경유,
신속배달합니다.

※ 교우 기사 구합니다.

안인기(예로니모)
김순선(수산나)

☎ 211-6114, 212-0176

잡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11. 1 + 1 = 1의 신비인 혼인

젊은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건강한 가정, 혹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대략 50만 쌍이 결혼한다고 하니 그만큼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에 달하는 4만 쌍 정도가 이혼으로 인해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현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과 해소할 수 없는 유대 관계의 공적인 표현인 혼인은 1+1=1이라는 신비의 일치 방정식을 성립시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태는 1+1=2라는 분열 방정식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답은 명백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됨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됨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정에서는 물론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름지기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부부는 완전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우리 식으로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소식

-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10월31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초청강사-이해인 수녀
- ※ 가톨릭 사진가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 10월29일~11월7일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1. 천호 피정 안내: 11월3일(목) 주제-믿음과 기쁨의 생활, 강사-법석규 신부, 문의 73-6600
- 2.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 성전 봉헌식: 11월1일(화) 오전10시, 주례-이병호 주교
- 3.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85-0041(홍보국)
- 4. 초등부 성탄연수: 11월5일~6일 나바위 피정의 집
- 5. 꾸르실료 총회: 11월5일~6일 천호 피정의 집
- 6. 사랑의 다리 후원회: 11월7일(월) 오전9시, 치명자산 성당 지도-법석규 신부, 회비-5,000원(중식포함) 문의 84-5290
- 7. 성모기사회: 11월5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8. 푸른군대: 11월3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 9. 송천 성당 대건성가대 제2회 발표회: 11월9일(수) 오후7시30분 전복예술회관
- 정소모임 성바로로팔수도회: 11월6일 오후2시 성바로로서원 (0652) 252-3398 서울성가소비녀회: 수시로 성소상담 (0652) 223-382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걸어서 출·퇴근을 합시다. 승용차의 사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성신당 한약방

이 흥 재(요셉)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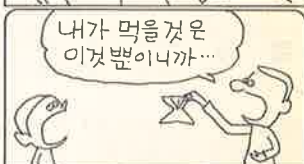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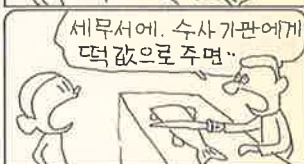
이 상 역(요셉)

☎ (0652) 87-6301~6 호출기 015-685-0312

성모승천봉헌자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11월6일(일) 오후 2시
- 장소: 팽주 본원
- 준비물: 성가책, 필기도구
- 문의: (062) 371-0172

요십이 (1105) 김병오



요십이(김병오) 유화 작품전

- 일시: 10월29일~11월5일
- 장소: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2층 전시실(남문 옆)

본당설립 100주년기념 성전 봉헌식

- 일시: 11월1일(화) 오전 10시
- 집전: 이병호(빈첸시오)주교
- 장소: 고산 천주교회

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허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 (주문접수중: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 31주일
- ◎ 교무금 및 주일헌금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군산 나운동 성당 건립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2. 위령의 날: 11월2일(수)
* 모든 죽은이를 위하여 저녁미사 후에 연도 있음
새 연도책 준비바람
- 3. 성시간: 3일 저녁미사 후
- 4. 병자 봉성체: 4일 오전중
* 환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5. 사목회 상임: 4일 저녁미사 후
- 6. 전입을 환영합니다.
· 길목회(모니카) - 기린봉1반 ☎ 86-0895
- 7. 감사헌금: 익명-사만원, 감사합니다.
- 8. 모임: ① 성모회, 자모회(정기총회) - 1일 어머니미사 후
② 반회장 모임 - 3일 전 10시30분
③ 울뜨레아 - 6일 장엄미사 후
- 9. 금주 청소: 인후10, 11반
차주 청소: 동진1, 2반
- 지난주 봉헌금: 1,029,920원 □ 교무금: 1,385,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 31주일! (11월은 위령성월)
- ◎ 오늘 군산 나운동 성당 성전 건립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1. 반장회: 10월30일(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목회: 11월1일(화) 오후 8시30분
- 3. 자모회: 11월2일(수) 오전 10시30분
- 4. 꾸리아: 11월6일(다음주일) 오후 2시
- 5. 성심회: 11월8일(화) 오전 10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897,550원 □ 교무금: 1,228,000원
- 2차헌금: 375,95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활길필

- 1. 울뜨레아: 11월1일(화) 저녁미사 후
- 2. 성체 강복: 11월3일(목) 저녁미사 후
- 3. 가정 방문: (오전 방문은 9시30분, 오후 방문은 2시에 시작)
· 11월1일 오전, 오후 - 진북동 1반
· 11월2일 오후 - 진북동 2반
· 11월3일 오전 - 진북동 3반, 오후 - 진북동 4반
- 4. 성지순례: 11월6일(다음 주일) 오전 7시30분 출발(시간 엄수)
· 준비물 - 성가책, 미사책, 목주, 도시락
· 11월6일 주일은 새벽미사만 있음
- 5. 성령쇄신독상회: 일시 - 7일(월) ~ 12일(토), 오후 7시30분
대상 - 전신자, 특히 전진성사 받으실 분
지도 - 전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 성령쇄신독상회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미사 있음
- 6. 견진성사: 13일 주일 10시 공식미사에 이병호 주교님 집전
* 13일 주일 9시 학생미사 없음
- 7. 성당 청소(11월3일): 황금강전, 성모성년Pr
- 8.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유두석 부부
봉헌-장삼호 가족
- 9. 축! 혼인: 신랑-안현호 마르코, 신부-최윤정 테오필라
일시-11월13일 12시30분, 주례-안복진 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660,110원 □ 교무금: 1,161,900원
- 전교주일 헌금: 312,260원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11월은 위령성월
- 1.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오늘
- 2. 모임: ① 성모회-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5일(토) 저녁
③ 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 3. 주일학교 소풍: 오늘, 치명자산, 오후 3시미사 - 치명자산 성당
- 4.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 5. 병자 봉성체: 4일(금) 오전 9시부터
- 6. 성체 강복 및 성시간: 3일(목) 저녁미사 후
- 7. 호성동 성당 돕기 2차헌금: 다음주일
- 8. 금주 청소: 바다의 별Pr
- 9. 차주 청소: 순교자의 모후Pr
- 10.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정광섭 ②주영례
봉헌-김한철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우정숙, 독서①박귀철 ②김금자
봉헌-양주태씨 부부
- * 칠성사란?
성체성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들 서로
간의 일치를 가져다 주는 성사로서, 우리 영혼 생명의 양식이 된다.
고백성사: 영세 후 죄를 참회·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
로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성사이다.
- 지난주 봉헌금: 315,920원 □ 2차헌금: 148,2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11월은 위령성월
- 1. 금주: ① 사목회 단합대회
② 초등부 주일학교 소풍(치명자산) - 3시미사 없음
③ 성소후원회 본당 임원단 모임(전 10시30분, 센터)
- 2. 성가정회: 11월1일(화) 오전 11시
- 3. 요셉회, 성모회 소록도 방문: 2일
- 4. 베에다회: 2일(수) 오전 11시
- 5. 성체 강복 및 조배: 3일(목) 오전 10시
- 6. 성모성심회: 3일 오후 3시
- 7. 병자 봉성체: 4일(금)
- 8. 차주: ①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 재속 글라과 형제회 - 후 1시30분
- 9. 농산물 직매장 개장: 오전 9시 ~ 오후 7시(매주 수요일 휴무)
- 10. 예비자 교리반 안내
일요일(오전 9시) - 일반, 화요일(오후 8시) - 젊은이
수요일(오전 10시) - 주부, 노인, 목요일(오후 8시) - 직장인
금요일(오후 8시) - 일반, 토요일(오후 4시) - 중·고등부
- 지난주 봉헌금: 1,780,600원

*** 평회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장삼근

- ◎ 사목협의회 회장 선출: 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 임원, 각 단체
장, 구역 반회장 전원 출석바랍니다.
- 1. 위령의 날 합동미사: 2일 전 10시30분 교회회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무실 접수
- 2. 모든 성인 대축일: 1일(화) 11시 어머니미사 저녁 7시30분
- 3. 위령의 날 야외미사 관계로 수요일 전 L.M은 1일 오전 9시30분에
회합, 반회장 연수회는 다음주일 화요일로 연기
- 4. "성가정 성공사례, 신앙체험수기, 선교체험수기" 공모
마감 - 11월21일, 원고지 20매 내외, 접수처 - 교구청 평협
- 5. 95년 사목계획서 제출: 각 분과 및 제단체별로 준비하여 제출
- 6. 성시간 성체 강복: 3일 저녁 7시30분
- 7. 유아 세례: 5일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 8. L.M 선서: 1일 어머니미사, 직장인 - 2일 저녁미사
- 9.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연수: 5일 ~ 6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 10. 가정 방문: 3일 4-1, 2, 3반 전 9시, 4-4반 후 2시30분, 4일 6-1
반 전 9시, 6-2반 후 2시30분
- 11. 회의: 꾸리아 - 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부녀회 - 위령의 날 행사 관계로 다음주 수요일 연기
- * 나운동 성당 신축을 위한 2차헌금: 바자회 4~6일
- 지난주 봉헌금: 1,026,910원 □ 교무금: 1,703,000원